

## 01. [과편협 소식]

### ● 제1회 출판윤리 워크숍(생명과학 분야) 개최

생명과학 분야 학술지 편집인 및 논문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제1회 출판윤리 워크숍이 2013년 2월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 제7회 편집인 워크숍 개최
- 출판윤리 포럼2 개최
- 제1회 출판윤리 워크숍 개최
- 2013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 과편협 1차 임원회의 개최
- 과편협 2차 임원회의 개최
- 정보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 2013년도 과편협 행사 연간표
- 2013년도 출판관련 국제학술대회 안내
- 과편협 회원현황
- 단체회원 가입 안내

### ● 2013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2013년도 과편협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지난 3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과편협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 64명이 참석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2년도 사업실적 보고와 세입세출 결산(안), 2013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회칙 개정(안), 단체 / 개인 / 특별회원 인준이 승인되었다.



## 02. [특집]

### 과편협 출판윤리 포럼 리포트 : 창립 포럼과 제1회 포럼

과편협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출판윤리를 주제로 한 창립 포럼과 첫 번째 포럼을 개최하였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앞으로 미포럼은 반년에 한 번씩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분기별로 확대하여 개최할 수도 있다.

[ 과편협 출판윤리위원회 ]

## 03. [기고]

### 원고편집인( manuscript editor ) 소개 : 원고편집위원회 신설에 즈음하여

과편협 출범의 주요 목적의 하나인 원고편집 전문가 양성 및 자격제도 사업을 수행할 '원고편집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에 즈음하여 원고편집인 (manuscript editor)에 대한 현황 및 역할, 자격과 능력, 외국의 자격증 발급제도 등을 소개한다.

조 혜 민 [ 원고편집위원회 준비위원 ]

## 04. [편집인 초대]

### Scopus에 등재된 「성인간호학회지」 : 간호사 특유의 긍정성을 바탕으로 이룬 성과

암묵적 생각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 드리며, 이제 2년째에 접어든 초보 편집인으로서 「성인간호학회지」를 과편협 회원들에게 알린다는 기쁨으로 이 글을 시작한다.

황선영 [『성인간호학회지』 편집위원장, 한양대 간호학부 교수]

## 05. [해외뉴스]

- CrossRef, Nature 논문 레벨 매트릭스 지원
- FundRef 실험 마무리 단계
- ORCID 참여와 ORCID ID 통합 권장
- CrossCheck 이용자 증가 및 이용자 그룹 회의 개최
- CrossCheck iThenticate 시스템 개발
- CrossMark 업데이트 확인 서비스
- CrossRef 메타데이터 검색을 통해 ORCID 연구물 추가
- DOI 소유권 이전(移轉) 방법



과편협 소식 | 특집 | 기고 | 편집인 초대 | 해외뉴스

## 01. [과편협 소식]

## 목 차

- |                              |                          |
|------------------------------|--------------------------|
| 1) '제1회 과편협 편집인 워크숍' 개최      | 5) 과편협 1차 임원회의 개최        |
| 2) '출판윤리 포럼2' 개최             | 6) 과편협 1차 임원회의 개최        |
| 3) '제1회 출판윤리 워크숍(생명과학분야)' 개최 | 7) 정보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
| 4) '2013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 8) 2013년도 과편협 행사 연간표     |
|                              | 9) 2013년도 출판관련 국제학술대회 안내 |

## 1) '제1회 과편협 편집인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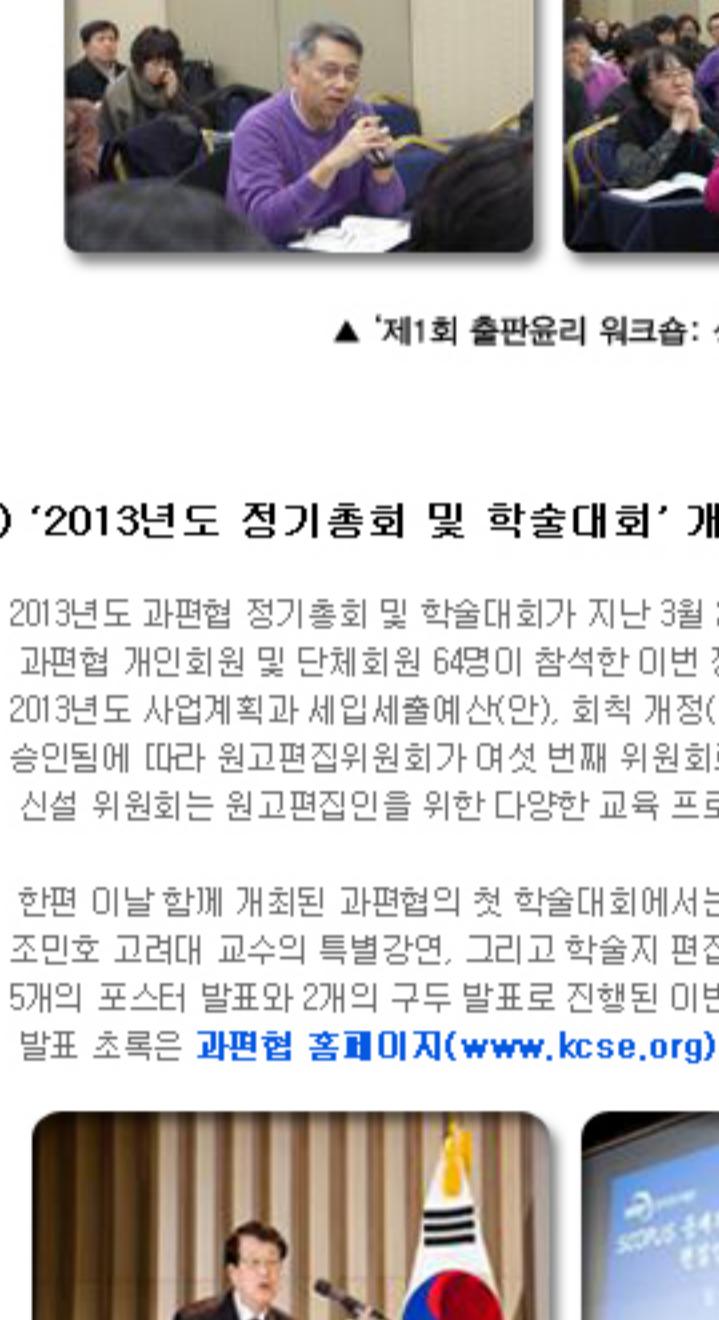
'제7회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편집인 워크숍'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지 국제화사업'의 지원 대상 4개 학술지 편집인과 편집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1월 18일(금) 오전 9시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워크숍은 현재 국내 영문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지만 아직 SCIE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 편집인이 편집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학술지 국제화에 필요한 일반적인 학술지 편집과 발행의 국제기준을 설명하고, 지금 발행하는 학술지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 자주 주도 학습으로 점검하여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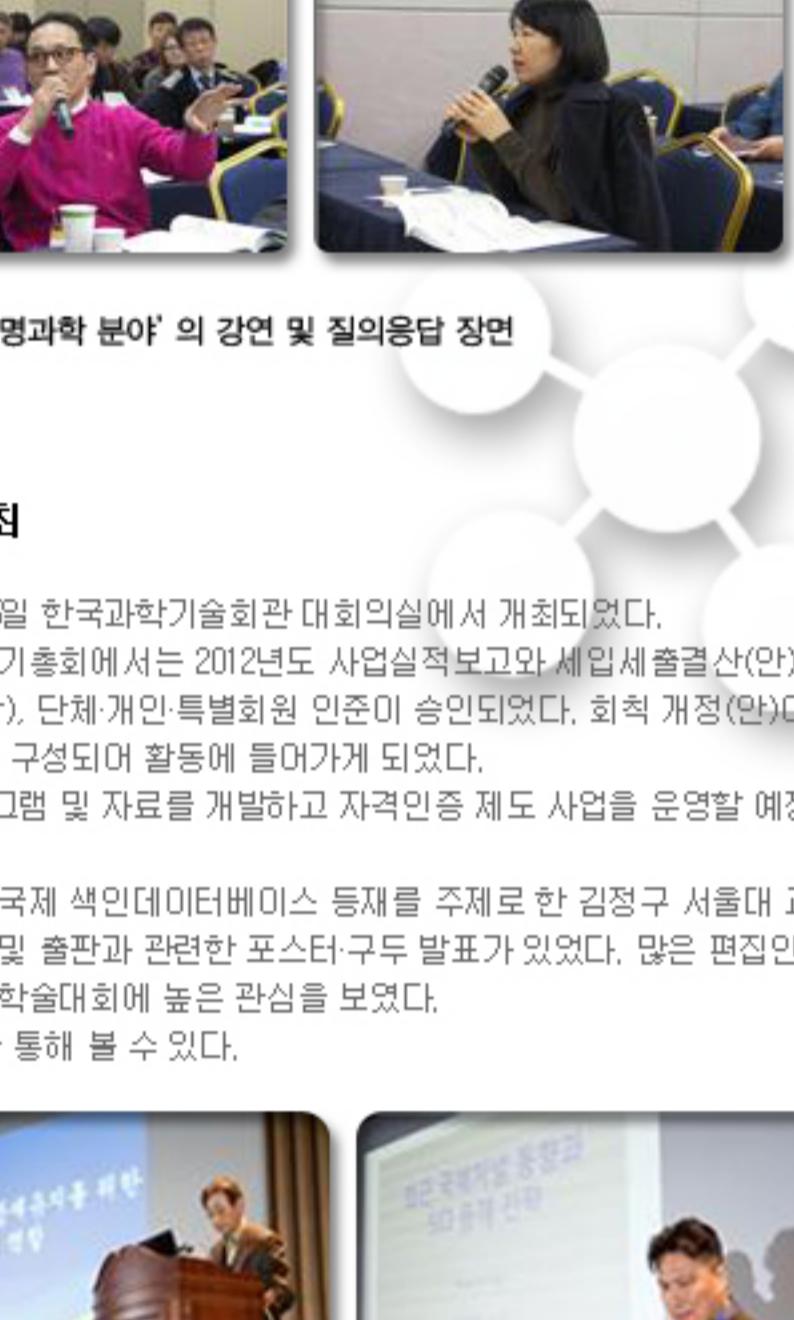
제1부에서는 국제 수준의 학술지 구성요소 및 원고편집, 투고규정 작성 및 참고문헌 스타일, 서지계량학, editorial, retraction, book review, letter to editor 작성법, 표절과 미증재, 그리고 검색엔진을 이용한 표절 검색 등과 같은 학술지 편집에서 필요한 기본 사항을 다루었다.

제2부에서는 학술지 발전전략으로 SCIE 등재전략, 국제수준 학술지 편집과 평가, 학술지 편집인에게 필요한 대외관계, 자금 확보와 저출 방안을 다루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에는 모든 참석자의 소감과 워크숍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 참석자의 대부분은 이번 워크숍의 내용에 대해 처음 듣고 공부한 내용으로 학술지 편집 세계가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단계마다 흥미로운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하였다. 또한 국제기준에 맞춘 학술지 편집과 발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하였다.



▲ '제7회 과편협 편집인 워크숍'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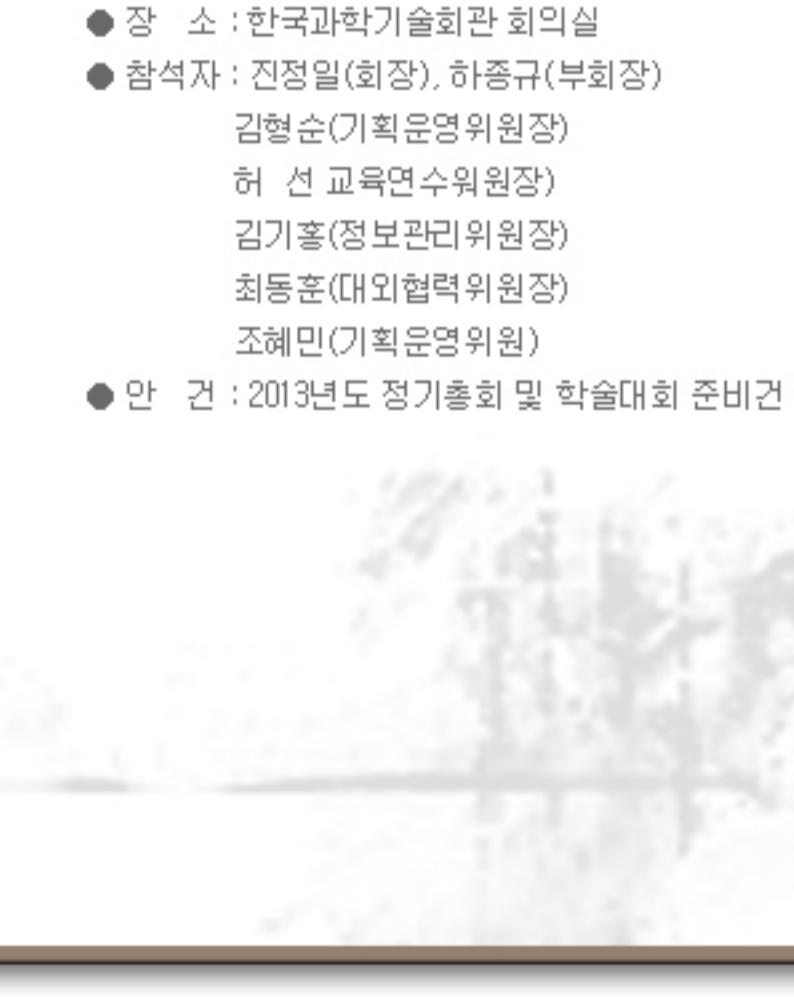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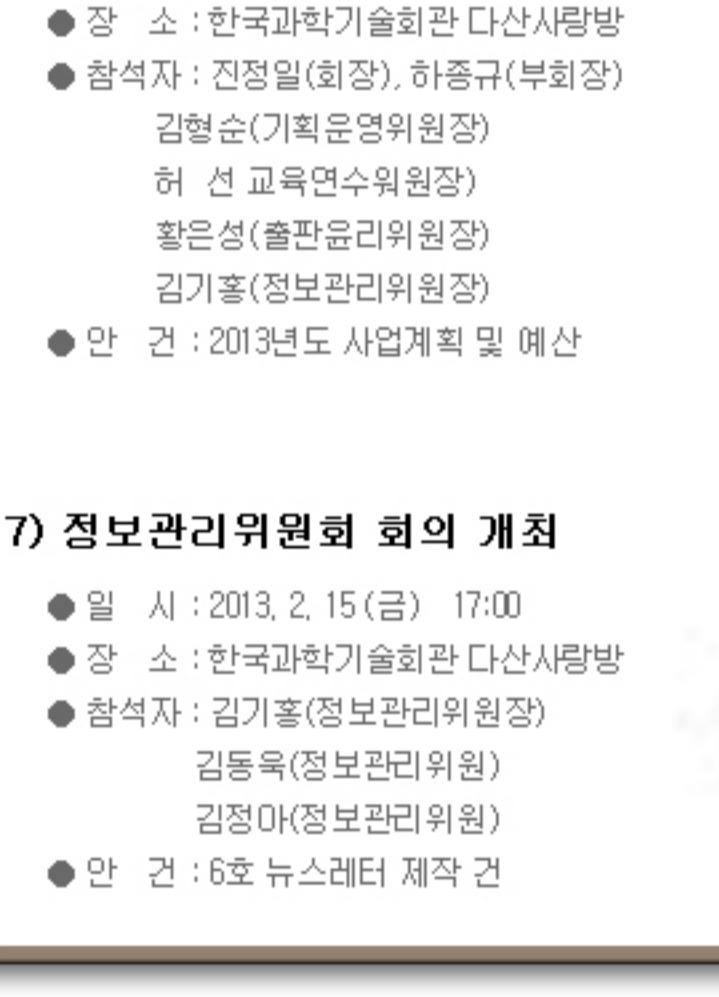


▲ '국제수준 학술지 편집과 평가'의 분임토의 후 토의 내용 발표 장면

## 2) '출판윤리 포럼2' 개최

두 번째 '출판윤리 포럼2'이 '한국 과학논문의 표절 문제와 처리'라는 주제 아래 2013년 1월 24일 한국과학기술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학술지 편집인과 논문 심사 위원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포럼은 박제 '국제논문에서의 표절 문제'(연사: 조은희)를 시작으로 '국내에서의 표절 등 부정행위의 처리 사례'(연사: 박기범),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사용한 논문 유사도 검사'(연사: 윤태웅), '데이터 진실성과 논문발표'(연사: 활은성), '논문철회'(연사: 김용록), '생명윤리와 IRB'(연사: 임정숙)의 다섯 강연으로 이루어졌다.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종합토론회에도 대부분의 참석자가 자리를 함께하며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 '출판윤리 포럼2'의 종합토론회 장면

## 3) '제1회 출판윤리 워크숍(생명과학 분야)' 개최

생명과학 분야 학술지 편집인 및 논문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제1회 출판윤리 워크숍이 2013년 2월 21일 한국과학기술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생명과학 분야 편집인 및 논문심사위원 95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표절과 미증재'(연사: 활은성),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사용한 논문 유사도 검색'(연사: 윤태웅), '데이터 진실성과 논문발표'(연사: 활은성), '논문철회'(연사: 김용록), '생명윤리와 IRB'(연사: 임정숙)의 다섯 강연으로 이루어졌다.

이 강연들은 워크숍 이후 진행된 강연 만족도 조사에서 모두 4점(5점 만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회 출판윤리 워크숍은 과학 분야 편집인 및 논문심사위원을 대상으로 8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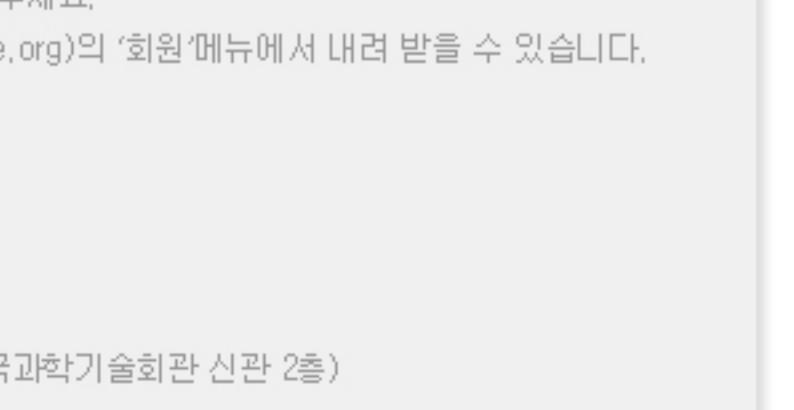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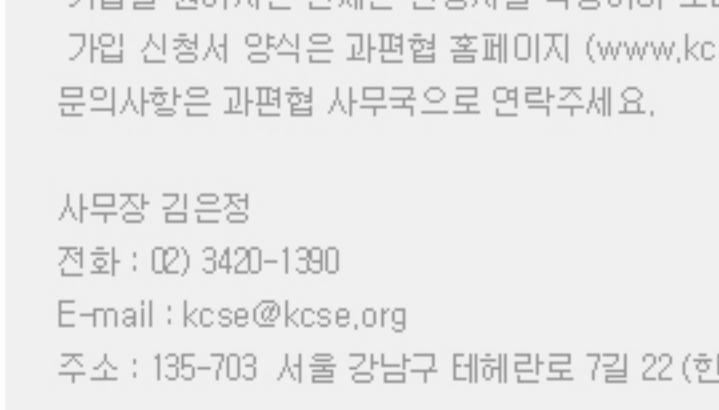


▲ '제1회 출판윤리 워크숍: 생명과학 분야'의 강연 및 질의응답 장면

## 4) '2013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2013년도 과편협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지난 3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과편협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 64명이 참석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2년도 사업실적보고와 세입세출결산(안), 2013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회칙 개정(안), 단체·개인 특별회원 인준이 승인되었다. 회칙 개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원고편집위원회가 여섯 번째 위원회로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신설 위원회는 원고편집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고 자격인증 제도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 '2013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장면

## 5) 과편협 1차 임원회의 개최

- |  |  |
|--|--|
| ● 일 시 : 2013. 1. 30 (수) 14:00                              | ● 일 시 : 2013. 3. 8 (금) 17:00   |
| ●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다산시랑방                                     | ●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   |
| ● 참석자 : 전정일(회장), 하중규(부회장)                                  | ● 참석자 : 전정일(회장), 하중규(부회장)  |
| 김형순(기획운영위원장)<br>허선 교육연수위원장<br>활은성(출판윤리위원장)<br>김기홍(정보관리위원장) | 김형순(기획운영위원장)<br>허선 교육연수위원장<br>김기홍(정보관리위원장)<br>최동훈(대외협력위원장)<br>조혜민(기획운영위원장) |
| ● 안 건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 ● 안 건 : 2013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준비건   |

## 6) 과편협 1차 임원회의 개최

- |  |  |
|--|--|
| ● 일 시 : 2013. 3. 8 (금) 17:00                               | ● 일 시 : 2013. 3. 8 (금) 17:00   |
| ●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                                       | ●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   |
| ● 참석자 : 전정일(회장), 하중규(부회장)                                  | ● 참석자 : 전정일(회장), 하중규(부회장)  |
| 김형순(기획운영위원장)<br>허선 교육연수위원장<br>활은성(출판윤리위원장)<br>김기홍(정보관리위원장) | 김형순(기획운영위원장)<br>허선 교육연수위원장<br>김기홍(정보관리위원장)<br>최동훈(대외협력위원장)<br>조혜민(기획운영위원장) |
| ● 안 건 : 2013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준비건                             | ● 안 건 : 2013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준비건   |

## 7) 정보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 |                               |  |
|-------------------------------|--|
| ● 일 시 : 2013. 2. 15 (금) 17:00 | ● 일 시 : 2013. 2. 15 (금) 17:00                |
| ●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다산시랑방        | ●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                         |
| ● 참석자 : 김기홍(정보관리위원장)          | ● 참석자 : 김기홍(정보관리위원장)                         |
| 김동욱(정보관리 위원)<br>김정마(정보관리 위원)  | 김기홍(정보관리위원장)<br>최동훈(대외협력위원장)<br>조혜민(기획운영위원장) |
| ● 안 건 : 6호 뉴스레터 제작 건          | ● 안 건 : 2013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준비건               |

## 8) 2013년도 과편협 행사 연간표

1월	2월	3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7회 편집인 워크숍 (1/18)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출판윤리 포럼2 (1/2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1회 출판윤리 워크숍 : 생명과학분야 (2/21)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3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3/25)
4월	5월	6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Advanced Manuscript Editing 교육 (5/7, 5/21)	<input checked="" type="checkbox"/> Advanced Manuscript Editing 교육 (6/5, 6/18)
7월	8월	9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8회 편집인 워크숍 (7/4~7/5) <input checked="" type="checkbox"/> Advanced Manuscript Editing 교육 (7/9, 7/23)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출판윤리 포럼3 (미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Advanced Manuscript Editing 교육 (8/21~8/2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2회 출판윤리 워크숍 : 과학분야 (미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Advanced Manuscript Editing 교육 (9/10, 9/2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9회 원고편집인 워크숍 (9/12~9/13)
10월	11월	12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BELS exam (10/19)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10회 편집인 워크숍 (12/5~12/6)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출판윤리 포럼4 (미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 2013년도 출판관련 국제학술대회 안내


--

3-6 May 2013  
2013 Council of Science Editors (CSE) Annual Meeting  
Location: Montreal, Canada  
Website: <http://www.councilscienceeditors.org/>

5-7 June 2013  
2013 Society for Scholarly Publishing (SSP) 35th Annual Meeting  
Location: San Francisco, USA  
Website: <http://www.sspnet.org/>

11-13 September 2013  
Association of Learned and Professional Society Publishers (ALPSP) International Conference  
Location: Belfry, UK  
Website: <http://www.alpsconference.org/>

12-13 November 2013  
CrossRef 2013 Annual Meeting  
Location: Cambridge, USA

발행인: 진정일  
발행처: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135-70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Tel: 02-3420-1390 Fax: 02-563-4931 E-mail: [kcsse@kcsse.org](mailto:kcsse@kcsse.org) Homepage: [www.kcsse.org](http://www.kcsse.org)

단체 회원 110개, 개인 회원 35명, 특별 회원 6개

## 단체회원 가입안내

과편협은 고학술지지의 편집 및 발간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 관련 규정을 협의함으로서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과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본협의회는 편집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판윤리 관련 사안 심의, 편집 관련 최신 정보 제공 등 국내 편집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원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 편집인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면  
- 과편협 별행 교육 책자 구입 시 정가의 50% 할인

가입을 원하시는 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가입 신청서 양식은 과편협 홈페이지 ([www.kcsse.org](http://www.kcsse.org))의 '회원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과편협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사무장 김은정  
전화: 02) 3420-1390  
E-mail: [kcsse@kcsse.org](mailto:kcsse@kcsse.org)  
주소: 135-7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 진정일  
발행처: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135-70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Tel: 02-3420-1390 Fax: 02-563-4931 E-mail: [kcsse@kcsse.org](mailto:kcsse@kcsse.org) Homepage: [www.kcsse.org](http://www.kcsse.org)

10

글리 포럼의 출범 배경과 의미

국내학술지의 국제화를 노보하는 것이다. 학술지의 국제화는 기세운 논문들을 국제적으로 노출시켜 도를 크게 높이는 좋은 효과가 있지만, 논문이 부실할 경우 이 또한 국제적으로 훨씬 쉽게 노출되므로 꼴며 올린 학술지의 명성을 자칫 일순간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

따라서 학술지의 국제화에는 반드시 논문의 연구진실성 측면에서의 수준 증진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어야 한다. 위해서는 우리 편집인들의 출판윤리에 대한 소양과 실천철학이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하겠다. 적으로 편집인들이 출판윤리 위반을 판정하고 학술지에서의 연구의 진실성을 고수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예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 스스로 연구자이기도 한 편집인들이 자신의 연구윤리는 잘 지키지만, 연구윤리를 기만한 경우를 자주 지 못하여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판정을 자신 있게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마련하였

- 럼과 제1회 포럼 모두 과편협의 출판윤리위원회가 참여하여 발제하고 토론하였음을 우선 밝힌다.  
제1부: 학술지 논문의 질과 편집인의 역할  
제1장 외 학술지에서의 출판윤리 이슈와 논문의 질 관리 - 황은성 서울시립대 교수(과편협 출판윤리위원회 위원장)  
제2장 국제공계 논문에서의 출판윤리 이슈들 - 강호정 연세대 교수  
제3장 논문출판에서의 윤리의 원칙 - 이상욱 한양대 교수  
  
제2부: 표절과 중복출판  
제1장 표절과 중복출판에 대한 이해 - 황은성 교수  
제2장 표절과 중복출판 예방 및 대처방법 - 김민경 교수  
제3장 표절과 중복출판 예방 및 대처방법 - 김민경 교수  
  
제3부: 국제학술지 편집자 단체인 WAME(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의 웹포럼(web forum)에 대한 소개  
제1장 국제학술지 편집자 단체인 WAME(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의 웹포럼(web forum)에 대한 소개 - 황은성 교수  
제2장 국제학술지 편집자 단체인 WAME(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의 웹포럼(web forum)에 대한 소개 - 황은성 교수  
제3장 국제학술지 편집자 단체인 WAME(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의 웹포럼(web forum)에 대한 소개 - 황은성 교수  
  
제4부: 출판윤리와 저작권  
제1장 출판윤리와 저작권 - 황은성 교수  
제2장 출판윤리와 저작권 - 황은성 교수  
제3장 출판윤리와 저작권 - 황은성 교수

이중게재의 행위로 비난할 수도 있지만  
측면에서 그 타당성도 인정할 수 있다는  
소개하였다.

편집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된 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논제 6 우리나라 학술지에서는 논문심사가 충실히 잘 이루어지고 있나?'에서는 편집인들에게 질문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발제 하나하나가 향후의 포럼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토론 1]에서 강호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조작, 표절, 미증거재 및 저자권 문제들에 대해 현대과학과 우리나라 과학계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리고, 특히 생각해야 할 문제로 △ 영어로 학문하는 것의 어려움 △ 학술단체의 난립에 기인한 논문 질 저하의 문제 △직업으로서의 과학연구가 행해지는 현실을 제시하였다.  
[토론 2]에서 이상욱 교수는 학술논문 윤리의 기본으로 '생산성과 공동체적 '신뢰' 가치 두 가지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이 교수는 학술논문이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선행연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며, 학술논문의 출판윤리는 이처럼 학술논문의 기능적 존재이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실험 원자료의 위조, 변조만이 아니라 과장된 주장이나 논문 조개기 관행 등 출판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는 다른 연구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귀중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대과학에서는 진정성의 연구 보장책인 인에도 불구하고 그려 나온 한 가지 디스코디의 있는데, 있는 대로

서는 직접적인 연구 부정행위 외에도 윤리적 고려사항이 한 가지 더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공적(credit)’의 인정’에 대한 문제라고 하였고, 이 때문에 미중출판에 대한 논쟁이 ‘인용’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 2013년 첫 번째 포럼: 과학논문의 표절 – 문제와 처리

[발제] 국내 과학논문에서의 표절 – 조은희 조선대 교수(과편협 출판윤리부위원장)

[토론 1] 표절의 처리 사례와 문제점 –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2] CrossCheck를 사용한 논문 유사도 검사 – 윤태웅 고려대 교수

[토론 3] 한글논문을 위한 표절검색방법의 구축 – 김영목 부경대 교수

소개하였다. 이어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 제시한 표절과 중복게재의 정의와 예외사항들을 우선 소개하였다.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표절과 중복게재, 두 경우 모두에서 관련학계 또는 동일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평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각 학술단체에서 스스로 예방과 후속처리를 위한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한편, 게재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 의혹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의 고유한 현상으로서, 학회의 윤리위원회와의 분담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COPE의 표절의혹에 대한 처리의 Flowchart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데 할애하였다. 끝으로 정리단계에서는 다음 네 가지에 대한 토론을 제안하였다.

1. 투고논문에 대한 표절협의 처리 과정
2. 텍스트표절에 대한 처리
3. 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대한 처리
4.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사이의 역할 분담

‘ 있는가?’하면서 둘 사이의 소통부족을 지적하였고, 2. 대학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는가?’하면서 결과공지가 없는 대학의 현실을 꼬집었다. 3. 부정행위를 제보받은 학회는 신뢰할 만한가?하면서 학회에서의 조사와 검증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 학회의 대처는 그리 공정하지 못하고, 외부에서의 문제 제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토론 1]이 끝나고 진행된 첫 번째 종합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토론이 있었다.

1. 중복게재 판정의 어려움(의학계열에서 5년 주기 연구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의 중복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청중에게 호소하였고, 이에 대해 활은성 교수와 조은희 교수는 실험방법(materials and methods)에서는 덜 경직된 판정이 필요하며, 실제로 현재의 경향은 이 부분에서의 중복제거는 거의 문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청중들도 동의하였다.
2. “출판된 논문이 아닌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판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청중의 질문에 조은희 교수는 이 역시 표절이라고 하였다. 다만 이를 편집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대부분 학회에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윤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학회와 편집인이 판단할 일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 3 “말 바꾸어 쓰기의 어려움이 있다”는 청중의 의견이 있었고, 황은성 교수가 논문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권위 있는 기관의 ‘표절판정 가이드’ 제시가 필요하다는 청중의 의견에 대해서 황은성 교수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로는 우선, 표절의 판정이 현실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와 내 것인 양 쓰는 행위’라는 정의를 제대로 생각하여 판단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표절의 정의에 대한 학총의 연구윤리지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표절 -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라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출처표시를 밝히고 써도 그대로 사용하거나 문장을 유지하되 다만 단어를 조금 다른 것으로 쓰는 경우는 표절”이라고 하였고, 청중의 대부분이 이 견해에 찬성하였다. 황 교수는 추후 학총에 연락하여 잘못된 지침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5. 한편, 표절에 대한 정량적 규정 (예를 들어 ‘5개 문장이 동일할 경우 표절’ 판정)은 규정을 정하기 어렵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많은 참석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지지했다. (환경학 또는 기상학 분야

에서는 “교차검증하는 연구의 경우, 방법이 동일하고 논문 프레임이 동일해야 제대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표준화된 측정방법과 문장들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많은 경우 text를 통일해서 써야 한다”는 학계의 관례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6 청중에서 연구윤리나 출판윤리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자, 황은성 교수는 “과편협의 출판윤리위원회 사업목적에는 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사안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것도 있다”고 하였다.

7. “서론-고찰에서 2, 3행이 동일한 경우 철회(retract)로 해야 하나? 아니면 오기를 바로잡는 정오표(erratum) 공시로 해야 하나?”라는 청중의 질문에 대해 조은희 교수는 “연구내용이 좋다면 투고자를 설득해서 동일부분을 고치는 것이 좋은 편집인의 자세일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논문이 발표된 후에는 retract하는 것과 erratum 공시를 하는 것의 두 가능성은 있지만, 표절을 당한 사람이 erratum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retract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편집자들의 의견은 어떤가?”하고 반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진 않았다.

8. “표절에서 공동저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는 청중의 질문에 대해서 황은성 교수와 박기범 연구위원은 “논문 투고 시 공동저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 서명하는 것은 그 진실성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관례상 공동저자의 책임은 잘 묻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어 개최된 [토론 2, 3]에서는 ‘CrossCheck를 사용한 논문 유사도 검사 기법’에 대한 윤태웅 교수의 설명과 김영복 교수의 한글논문을 위한 표절검색방법의 구축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윤태웅 교수는 마이센티케이트(iThenticate)라는 검색엔진과 크로스레프(CrossRef)가 제공하는 학술논문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맘을 활용하는 크로스체크(CrossCheck)서비스를 이용한 표절 검색시스템을 소개하고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윤태웅 교수는 CrossCheck 서비스는 표절을 곧바로 찾아내는 목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미의 활용을 명시하여 학술지 투고논문에서의 표절 예방과 방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주된 목표여야 한다고 하였다. 김영복 교수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0개월간 한국학술기술정보원에 의해 수행된 ‘학술논문표절 탐색 시범시스템 구축 과제’를 중심으로 한글논문을 위한 표절 검색시스템 구축의 가능성을 조사해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 과제에서는 CrossCheck에 한글논문을 적용해본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이 시스템은 암기와 한계는 있으나 학술지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문제는 없다고 하다. 그러나 한글논문 고수는

시스템은 악간의 한계는 있으나 현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큰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김영복 교수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저작권의 문제가 더 큰 장애요소라고 하였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저자들의 개별적 이용 동의를 확보하는 일, 저작권관리단체 등의 저작권신탁제도를 활용하는 일, 그리고 일반적인 공정이용 제도를 정착시켜 이를 통한 전반적인 저작권 갈등요소를 해결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계약하고 있다. 누리미디어에 판권을 주었지만 오픈액세스(open access)가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였고, 김영복 교수는 이에 대해 "open access 권한이 없다. 따라서 국내논문들에 대한 거대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기 위해서는 학술지들이 이들과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저작권과 유통권은 다르다"라고 지적하면서 "학술지가 투고자에게 양도받는 권리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 청중의 질문 가운데 "CrossCheck에서 주는 유사성(similarity) 비율(%)이 표절판정의 가이드가 될 수 있나?"라는 것이 있었다. 이에 대해 활은성 교수는 "경험에 의하면 대략 10% 이상이면 내용 추적(content tracking)을 통한 세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조은희 교수는 "CrossCheck에서는 이러한 표절판정의 경우 조사자가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한다"고 강조하였다.

6. "CrossRef 가입 학술지는 CrossCheck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활은성 교수는 "DOI를 가진 학술지 편집인이라면 KISTI의 활선희 연구원에게 연락하면 바로 쓸 수 있다"고 하였다.

7. "어느 단계에서 CrossCheck를 쓰는 것이 좋은가?"라는 청중 질문에 대해서는 "편집에서 CC를 통해 표절 가능성이 있는 논문 목록(list)을 만들고 이를 심사자에게 제공해 세밀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준다"라고 하였으며,

“편집사무실의 인력이 전문적으로 체크한다”는 경험도 제시해주었다.

8. 윤태웅 교수는 “구글 스칼러(Google scholar)에서 키워드, 제목(title), 저자, 교신저자를 입력하면 이중계재에 대한 검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였고, 한양대 도서관의 사서로 일하고 있는 한 청중은 “데자뷰 DB를 활용하면 표절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주었다.

9. 이 밖에 연구부정뿐 아니라 특허침해, 재현성 부재의 문제들이 산업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사후처리에만 그치지 말고 예방효과를 강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청중의 의견이 있었다.

활용하는 크로스체크(CrossCheck)서비스를 이용한 표절 검색시스템을 소개하고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윤태웅 교수는 CrossCheck 서비스는 표절을 곧바로 찾아내는 목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미의 활용을 명시하여 학술지 투고논문에서의 표절 예방과 방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주된 목표여야 한다고 하였다. 김영복 교수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0개월간 한국학술기술정보원에 의해 수행된 '학술논문표절 탐색 시범시스템 구축 과제'를 중심으로 한글논문을 위한 표절 검색시스템 구축의 가능성을 조사해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 과제에서는 CrossCheck에 한글논문을 적용해본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이 시스템은 약간의 한계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하는데 큰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김영복 교수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저작권의 문제가 더 큰 장애요소라고 하였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저자들의 개별적 이용 동의를 확보하는 일, 저작권관리단체 등의 저작권신탁제도를 활용하는 일, 그리고 일반적인 공정이용 제도를 정착시켜 이를 통한 전반적인 저작권 갈등요소를 해결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이어서 마무어진 '총합토론 2'에서는

1. 조은희 교수는 "현재 국내 학술지들의 저작권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연, 학회 또는 학술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맞다면 저자들에게 양도를 따로 더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영복 교수는 "학회는 오프라인(off line) 인쇄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며, PDF 파일이나 온라인(on line) 저작물에 대해서는 학회가 아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누리미디어 등 다른 기관이나 사업자에 있다"고 밝혔다.
2. 이에 대해서 청중에서는 "학회들은 학회지의 on line 판권을 누리미디어에 주고 매년 일정액을 받으면서 계약하고 있다. 누리미디어에 판권을 주었지만 오픈액세스(open access)가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질문하였고, 김영복 교수는 이에 대해 "open access 권한이 없다. 따라서 국내논문들에 대한 거대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기 위해서는 학술지들이 이를과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저작권과 유통권은 다르다"라고 지적하면서 "학술지가 투고자에게 양도받는 권리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 청중의 질문 가운데 "CrossCheck에서 주는 유사성(similarity) 비율(%)이 표절판정의 가이드가 될 수 있나?"라는

것이 있었다. 이에 대해 활은성 교수는 “경험에 의하면 대략 10% 이상이면 내용 추적(content tracking)을 통한 세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조은희 교수는 “CrossCheck에서는 이러한 표절판정의 경우 조사자가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한다”고 강조하였다.

“편집사무실의 인력이 전문적으로 체크한다”는 경험도 제시해주었다.

8. 윤태웅 교수는 “구글 스칼러(Google scholar)에서 키워드, 제목(title), 저자, 교신저자를 입력하면 이중계재에 대한 검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였고, 한양대 도서관의 사서로 일하고 있는 한 청중은 “데자뷰 DB를 활용하면 표절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주었다.

9. 이 밖에 연구부정뿐 아니라 특허침해, 재현성 부재의 문제들이 산업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사후처리에만 그치지 말고 예방효과를 강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청중의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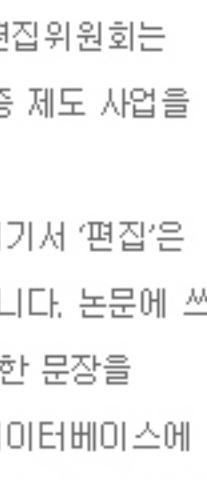
주제	설문조사 결과
포럼에 대한 만족도	75%
포럼에 대한 필요성	82%



## 03. [기고]

## 원고편집인( manuscript editor ) 소개 : 원고편집위원회 신설에 즈음하여

과편협 출범의 주요 목적의 하나인 원고편집 전문가 양성 및 자격제도 사업을 수행할 '원고편집위원회'가 신설됐다. 이에 즈음하여 원고편집인( manuscript editor)에 대한 현황 및 역할, 자격과 능력, 외국의 자격증 발급제도 등을 소개한다.



조혜민 [원고편집위원회 준비위원]

## 목 차

1. 우리나라 원고편집인의 현황
2. 원고편집인의 역할
3. 원고편집인에게 필요한 자격과 능력
4. 외국의 자격증 발급제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는 여섯 번째 위원회로 '원고편집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원고편집위원회는 과학학술지 원고편집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편집규정 등의 자료 개발 및 원고편집인 자격인증 제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원고편집인은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를 해당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맞추어 편집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편집'은 단순하게 오자와 틀자를 고치고 출판 서식(format)에 맞추어 원고를 다듬는 것만 일컫는 것은 아니다. 논문에 쓰인 여러 정보(기관명, 키워드, 단위, 참고문헌 등)를 검토하고 통일된 용어나 표현으로 바꾸며, 어색한 문장을 수정하기도 한다. 또한 학술지의 형식과 체제를 국제수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어서 해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될 수 있도록 편집인과 함께 노력하고, 미중게재/표절/저작권 등 출판윤리에 관한 문제도 검토하며, 저자 및 편집인과 출판사의 중간에서 상호 연결해주는 역할도 함께한다.

## 1. 우리나라 원고편집인의 현황

Elsevier, Wiley 등 해외 유수 출판사의 경우 출판사 내에 원고편집인이 있어 원고를 각 학술지의 스타일에 맞춰 편집 출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학술지들이 편집이라는 과정 없이 출판사(인쇄소)의 간단한 조판작업만을 거쳐 출판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Science Citation Index (SCI)와 Scopu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의 형식과 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은 원고'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되었으며, 그 일을 담당할 원고편집인도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학술지평가의 항목 중에 원고편집인이 있는가가 생기면서 원고편집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학술지평가에서 원고편집인의 유무를 중시하는 이유는 원고편집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학술지 형식 및 체제를 국제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원고편집인이라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2008년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주관한 '제1회 의학 학술지 Manuscript Editor 교육과정'부터였다. 이 프로그램은 5일 과정(40시간)의 원고편집 교육을 실시했는데, 당시 프리랜서로 일하던 원고편집인, 학회의 학술지 담당자, 출판사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교육을 시작으로 원고편집인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 교육에 참여했던 출판사들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원고편집을 시도하는 국내 출판사가 생겼으며, 나마가 몇몇 출판사에서는 원고편집 업무를 정착해가기 시작했다. 현재 원고편집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원고편집 전문회사, 출판사, 학회 등에 소속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하지만 이를 중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으며, 교육 수강을 원한다면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 2. 원고편집인의 역할

앞에서 이야기한 원고편집인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편집: 원고편집인의 역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고가 투고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수정 편집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형식, 오자와 틀자 수정부터 약어나 참고문헌의 확인 수정에 이르기까지 논문과 학술지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듬는 역할을 담당한다.

2) 학술지의 체제 구축 관리: 원고편집인들은 한 편 한 편의 원고에 대한 수정 편집의 역할뿐 아니라 학술지 전체의 체제를 점검하고 통일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학술지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체제가 개편될 때는 국제수준의 학술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미중게재 및 저작권 관련 사항 점검: 원고편집인은 투고된 논문들의 미중게재 여부를 확인하여, 투고된 논문에 사용된 그림이나 표 등이 저작권이 있는 다른 논문의 자료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이 일은 원고편집인이 전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편집인을 도와 출판된 논문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4) 학술지의 국제화 지원: 국내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 학술지 체제를 정비하고,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많은 이용자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면에서 지원해야 한다. 원고편집인은 데이터베이스 등재기준이나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편집인들에게 제공한다.

## 3. 원고편집인에게 필요한 자격과 능력

원고편집인의 역할은 다양하여, 개인의 역량에 따라 일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OO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원고편집인이 될 수 있다'는 원고편집을 위해서는 OO 자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만큼 일의 영역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먼저 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자격/능력을 살펴보겠다.

1) 대학수준 이상의 학력: 원고편집인의 역할 자체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원고편집인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원고편집인은 학술 자료를 다루고 편집하는 사람으로 학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갖춘 사람어야 하며, 대학 교육 이상의 학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자신이 논문을 써본 경험 있는 사람으면 더욱 좋는데, 논문을 써본 경험은 논문 자체에 대한 이해가 높을 뿐 아니라, 논문을 쓰는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며,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 해당 학문분야의 배경지식: 가장 좋은 원고편집자인은 해당 학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원고편집에 대해 공부하여 원고를 교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우므로, 그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과 많이 사용하는 용어/약어들을 익히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들에 대한 정보, 그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편집스타일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및 서지정보에 대한 이해: 원고편집인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참고문헌을 검색하여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참고문헌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대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고, 제대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참고문헌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서지정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4) 영어: 국내에서 발행되는 여러 국문학술지가 영문학술지로 바뀌는 데다, 투고하는 저자들의 국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본 영문독해 및 외국저자들과의 교신에 필요한 영작문 실력이 요구된다.

5) 커뮤니케이션 기술: 원고편집인은 다양한 분야의 저자, 편집인, 출판사 직원들과 교신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직접 대면보다는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교신을 하게 되므로 이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요구된다.

6)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 기본적으로 저자들의 원고를 메일로 받아 수정하기 위해서는 MS 워드와 한글 워드 기능의 사용법을 충분히 알아야 하며, 엑셀, 파워포인트, PDF의 사용법도 잘 알아야 한다. 공학 분야에서 일하는 원고편집인들은 Latex 등의 프로그램을 이해하면 업무를 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참고문헌 처리를 위한 논문작성 도구(Endnote 등)의 활용도 필요하다.

이상에서 원고편집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과 능력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 모든 자격을 갖추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 일에 관심을 느끼며, 우리나라 학술지 발전에 기여하고픈 마음이 있는 분들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4. 외국의 자격증 발급제

우리나라에는 원고편집인들을 위한 정식 교육과정 및 자격인증제도가 아직 없다. 현재까지는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와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1~5일의 단기 교육과정만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수준이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대학 및 협회 등에서 자격증 발급제도를 운영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Board of Editors in the Life Sciences (BELS, <http://www.bels.org>)  
- 1991년 미국에서 시작된 생명과학 분야의 원고편집인 자격제도이다.

이 자격증은 국제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제도다. BELS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사 이상, 2년 이상의 원고편집인 경력이 있어야 하며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과편협에서는 오는 10월 관심 있는 국내 원고편집인들을 위해 BELS 자격시험을 국내에서 치를 예정이다. 시험 등록비는 US\$200이며, 신청 후 2년 미내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US\$50를 내고 재시험을 볼 수 있다. 이 시험에 관한 정보는 Certification study guide (<http://www.bels.org/becomeeditor/BELSStudyGuide0724121.pdf>)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2) University of Chicago Graham School of Continuing Liberal and Professional Studies의 Online Certificate in Medical Writing and Editing (<https://grahamschool.uchicago.edu/content/online-certificate-medical-writing-and-editing>)  
-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과정(비학위)이다. 기본 4강좌(Introduction to Medical Editing I/II, Medline and Beyond: Medical Research Databases, Advanced Medical Editing)를 미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한 강좌는 4주간 진행되며, 실시간 온라인 강의, PPT 동영상 강의, 과제, 토의로 구성된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과정으로 수강료(\$4,700)가 비싼 것이 단점이다.

3) American Medical Writers Association (AMWA, <http://www.amwa.org>)의 Certificate Programs  
- AMWA는 Medical Writers들의 모임으로 생명과학/의학/약학 관련 분야에서 논문작성 및 편집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제약회사, 공공기관,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건강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한다. AMWA는 100개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온오프라인을 통해 8개 교육 프로그램을 미수하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AMWA 자격 프로그램을 미수할 수 있는데, (1) AMWA 회원가입, (2) 자격프로그램 신청, (3) 8개 Self-study Workshop 참석 및 Test를 거치면 된다.

4) Counsel of Scientific Editors (CSE)의 Publication Certificate Program  
- 2012년부터 시작된 미국 CSE의 자격 프로그램은 3년 동안 (1) CSE의 Annual Meeting에 2회 이상 참석하고, (2) 3회 이상의 CSE 웹 세미나를 듣고, (3) 2회 이상의 단기강좌를 들은 후, (4) 학술출판에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5) 다음해 Annual Meeting에서 포스터 발표를 하는 것이다. CSE 자격제도는 원고편집보다는 학술출판 전반을 다루고 있어서 managing editor 등에 좀 더 적합한 인증제도이다.

위의 이런 자격/인증제도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위한 교육과정이라 일부 내용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원어민에게 영문교정을 받는 우리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학술지들을 국제학술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므로, 원고편집인들도 그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교육 참여를 통해 외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제도를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원고편집인에 대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소개하였지만 그 역할에 맞는 좋은 우리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영어 manuscript editor의 단순 번역어인 '원고편집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다 좋은 표현을 제안해주세요.

[infolumi.cho@gmail.com](mailto:infolumi.cho@gmail.com)

발행인: 진정일 | 발행처: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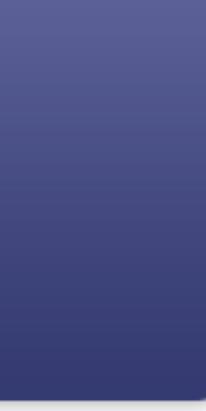
135-70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Tel: 02-3420-1390 Fax: 02-563-4931 E-mail: [kcsse@kcsse.org](mailto:kcsse@kcsse.org) Homepage: [www.kcsse.org](http://www.kcsse.org)

## 04. [편집인 초대]

### Scopus에 등재된 「성인간호학회지」 : 간호사 특유의 긍정성을 바탕으로 이룬 성과

암묵적 생각에 명시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 드리며, 이제 2년째로 접어든 초보 편집인으로서 「성인간호학회지」를 과편협 회원들에게 알린다는 기쁨으로 이 글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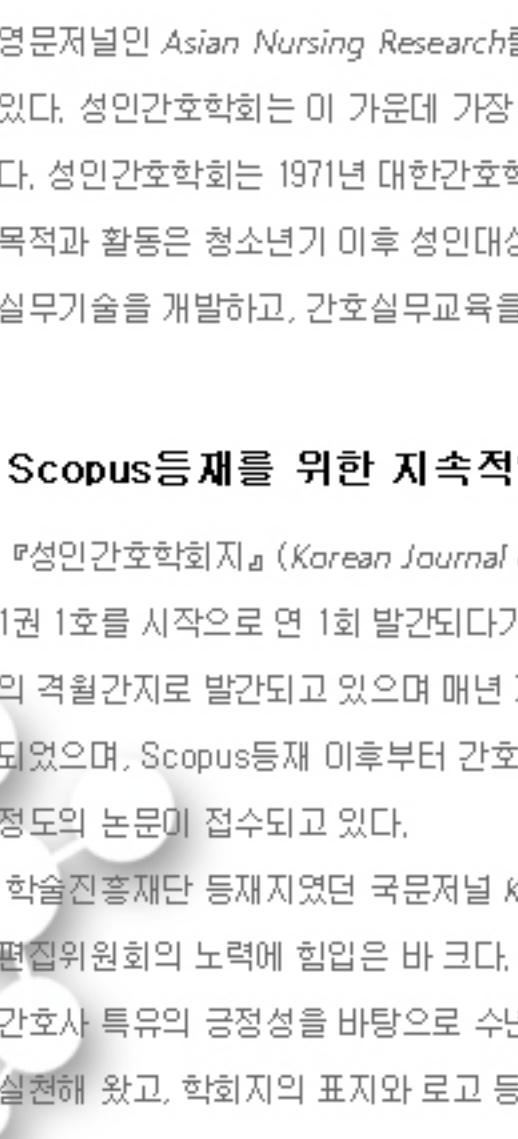
황선영

『성인간호학회지』 편집위원장

한양대 간호학부 교수

### 목 차

- 간호, 간호학, 간호학 저널
- 한국간호과학회의 최대 분과 학회, 성인간호학회
- Scopus등재를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노력
-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세 가지 과제
- 과총과 과편협에 바라는 점



###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한글명칭 : 성인간호학회지

영문명칭 :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약칭 : Korean J Adult Nurs

I S S N : 1225-4886

발행방법 : 격월간지(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창간년도 : 1989년

#### ● 간호, 간호학, 간호학 저널

간호(nursing care)는 대상자의 질병회복이라는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건강문제를 가져온 외부 환경과 자신 및 가족의 신념 등을 변화시켜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간호학은 질병회복을 위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치료 대상자의 건강문제 해결과 건강증진을 위해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하는 예술성이 강조되는 학문이다.

따라서 간호연구는 건강문제의 발생과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환경 간 상호작용 안에서의 다양한 현상에 관심을 두며, 질병의 치료방법이나 약물의 효과에 초점을 둔 의학이나 약학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간호학은 이러한 인문사회학적 특성으로 인해 연구주제와 대상, 연구방법이 아주 다양하며, 토고논문도 양적 연구만이 아닌 질적 연구에 관한 것도 많아 편집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 ● 한국간호과학회의 최대 분과 학회, 성인간호학회

간호학자들의 모체인 한국간호과학회는 1970년에 창설되어 2013년 현재 3,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성인간호학회, 여성간호학회, 아동간호학회, 간호행정학회, 기초간호자연과학회, 기본간호학회, 정신간호학회, 지역사회간호학회 등 8개의 분과 학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학술지로는 국문저널인 「대한간호학회지」와 영문저널인 Asian Nursing Research를 발행하고 있는데 모두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SSCI)에 등재되어 있다. 성인간호학회는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이 활동하는 분과 학회로서 2013년 현재 회원 수는 1,200여 명이다. 성인간호학회는 1971년 대한간호학회 내외과분과학회로 발족하여 1987년 성인간호학회로 개명하였다. 주요 목적과 활동은 청소년기 이후 성인대상자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중심 간호이론 및 실무기술을 개발하고, 간호실무교육을 제공하며, 성인간호 분야의 연구 및 학술활동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 ● Scopus등재를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노력

『성인간호학회지』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KJAN)는 성인간호학회의 공식 학회지로서 1989년 3월 1권 1호를 시작으로 연 1회 발간되다가 1992년부터는 연 2회, 1999년부터는 연 4회, 그리고 2008년부터는 연 6회의 격월간지로 발간되고 있으며 매년 게재되는 논문량은 총 70편 정도이다. KJAN은 2012년 1월 Scopus에 등재되었으며, Scopus등재 이후부터 간호연구자들과 임상실무자들의 투고가 현저히 증가해 현재 월 평균 15편 정도의 논문이 접수되고 있다.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였던 국문저널 KJAN이 Scopus등재라는 놀라운 성장을 한 배경에는 전임 편집위원장 이하 편집위원회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국문학회지로서 국제 색인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간호사 특유의 긍정성을 바탕으로 수년 전 초록과 참고문헌, 표, 그림의 영문표기를 시작한 아래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고, 학회지의 표지와 로고 등을 전문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디자인으로 단장하였다.

또한 국문, 영문 홈페이지와 원고를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편집하였고 정시 출판을 실천하였다. 또한 「게재 불가」 판정 비율이 평균 40퍼센트에 육박하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심사과정의 잡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3심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영문초록의 교정을 매번 미국 워스콘신대학의 중견 교수에게 일임하여 영문초록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들이 순 국문학회지인 「성인간호학회지」가 Scopus에 등재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사례가 지금 Scopus등재를 준비하는 학회지 담당자들께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세 가지 과제

Scopus등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밀히 개선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여러 부분에서 필요하다. 먼저, 원고편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 에디터 고용의 문제이다. 이는 국제학술지의 등재와도 관련되는 사항이지만 2012년부터 3, 4년제로 학제가 이원화되었던 간호대학이 4년제로 일원화되면서 교수들의 학술논문 투고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KJAN은 현재까지 투고자들의 심사 및 게재료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산 절감을 위해 편집장과 편집 위원들이 투고논문들을 검토하면서 투고규정에 맞는지 마지막 교열작업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모두 대학 교수들로서 학회 봉사 차원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만 내용적 측면의 교정 미외에 기술적 측면에서도 교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간호학회나 분과 학회와의 공조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성인간호학회 회장단 임기가 2년이고, 이를 각 대학의 간호대학에서 로테이션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필요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편집위원장의 편집인 역할도 가능한 한 장기간 수행하면 좋겠지만 2년마다 교체되는 실정이어서 지속성 있는 전문 교열작업을 위한 인력 수급이 절실한 것이다.

둘째, 국문·영문 혼용학회지로서의 위상 제고의 문제이다. 원래 KJAN은 국문학회지였으나 Scopus등재 이후부터는 영문원고의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외국 SSCI 학회지에 투고했다가 낙오된 논문들이 투고되다 보니 질 높은 논문이 게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KJAN은 영문논문 심사가 가능한 심사위원들을 보강하고 심사료도 국문논문 심사와 차등하는 등 투고 유도와 심사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셋째, 연구윤리의 강화 방안이다. Scopus등재 이후 별도로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영역을 마련하여 실행에 들어갔으며, 올해 9월부터는 IRB승인을 받지 않은 논문은 투고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간호연구의 특성상 분할이나 이차분석에 대한 연구자들의 해석에 많은 차이가 있어 논문에 대한 시비가 종종 일어나므로 이에 대한 편집위원회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 과총과 과편협에 바라는 점

과총 지원을 받는 학술지로서 과총과 과편협에 바라는 것은 심사 및 편집관련 교육과정이 학회지의 편집인뿐 아니라 일반 심사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점이다. 또한 과총의 학술지원 심사과정에 양식과 체계에 대한 평가점수만이 아니라 회원 수, 학회지의 가치 등에 대한 질적인 측면의 평가까지도 포함시켰으면 한다.

KJAN은 과총 지원을 받는 학술지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동시에 게재된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 대상자와의 따뜻한 만남을 통해 파생된 것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술 세미나 등을 꾸준히 개최하여 KJAN 게재논문의 주제와 결과를 주제적으로 분석, 임상실무자 및 교수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과학성에 대한 추구뿐 아니라 근거기반간호를 위한 연구결과의 확산과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린다.

## 05. [해외뉴스]

## 목 차

- CrossRef, Nature 논문 레벨 매트릭스 지원
- FundRef 실험 마무리 단계
- ORCID 참여와 ORCID ID 통합 권장
- CrossCheck 이용자 증가 및 이용자 그룹 회의 개최
- CrossCheck iThenticate 시스템 개발
- CrossMark 업데이트 확인 서비스
- CrossRef 메타데이터 검색을 통해 ORCID 연구물 추가
- DOI 소유권 이전(移轉) 방법

## ● CrossRef, Nature 논문 레벨 매트릭스 지원

**Nature Publishing Group (NPG)**은 지난해 가을 논문 레벨 매트릭스(article level metrics) 도구를 출시했다. NPG에서는 CrossRef의 Cited-by 데이터 외에 Web of Science, Scopus 등의 논문 인용지수를 표시한다.

또한 NPG는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의 웹 링크를 표시하기 위해 Altmetric를 사용한다. DOI 웹 링크를 통해 자료에 더욱 정확하게 접근 가능하다.

The screenshot shows the article-level metrics for a paper titled "An integrated encyclopedia of DNA elements in the human genome" from Nature, Volume 489, Issue 7414. The metrics include:

- Total citations: 21 (Web of Science), 83 (CrossRef), 45 (Scopus)
- Mentions in news, blogs & Google+: News articles (6), Scientific blogs (15), Google+ posts (3)
- Sharing & bookmark metrics: Tweets (171), Facebook (19), Google+ (3), News (6), Reddit (4), Blog posts (15)
- Production Registry and FundRef data will be openly available under CC0 wai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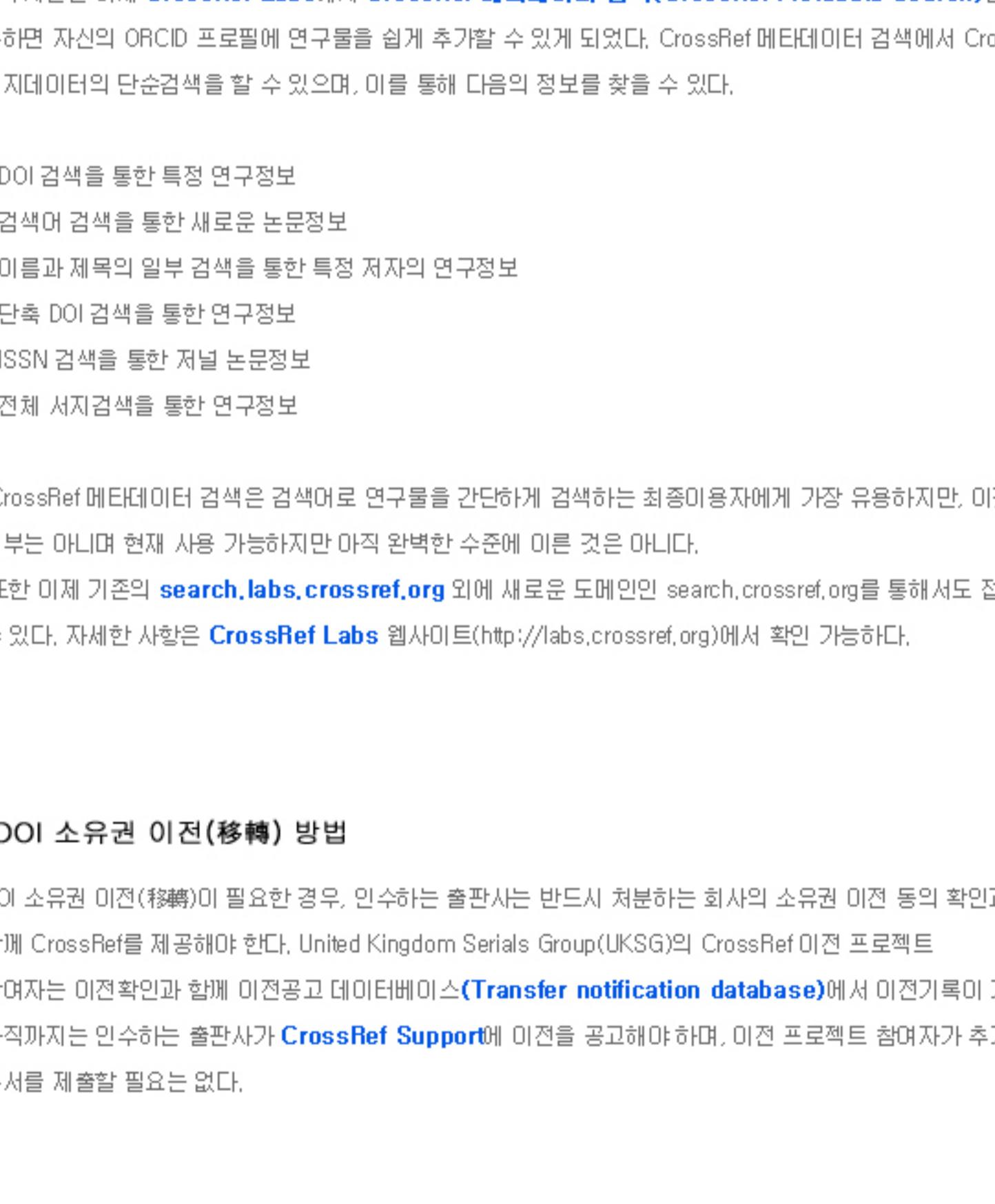
At the bottom, it says "Last updated: 30 January 2013 14:38:32 EST".

▲ <http://dx.doi.org/10.1038/nature11247>

## ● FundRef 실험 마무리 단계

출판된 학술연구에 대한 연구비 자료 보고의 표준을 제공하기 위해 학술출판사와 연구비 지원기관 사이에서 진행 중인 공동작업 **FundRef Pilot**이 곧 마무리된다. 다음 단계에 대한 권장사항이 포함된 전체 보고서는 2013년 3월에 출판되고, 후속 작업은 웨비나( webinar)를 통해 더 나루어질 전망이다.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기에, FundRef는 오는 4월 CrossRef 서비스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CrossRef 미사회는 2013년 3월 5~6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FundRef 보고서를 검토하고 다음 단계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실험 보고서와 웨비나에는 실제 FundRef 작업 흐름의 실례가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연구비 제공자명 레지스트리, 원고 주제 시스템 통합, CrossRef 메타데이터 deposit, CrossRef APIs와 CrossMark 서비스를 통한 FundRef 검색과 디스플레이 등의 정보가 속한다. **FundRef 작업의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 [http://www.crossref.org/08downloads/handouts/FundRef\\_Workflow.pdf](http://www.crossref.org/08downloads/handouts/FundRef_Workflow.pdf)

## ● ORCID 참여와 ORCID ID 통합 권장

2012년 10월 시작된 **ORCID 시스템**에는 현재 5만 개 이상의 연구자 ORCID ID가 등록되어 있다. CrossRef deposit 시스템은 ORCID ID를 사용하기 위해 CrossRef 메타데이터 deposit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모든 출판사가 ORCID에 참여하고 편집, 생산, 온라인 출판시스템에 ORCID ID를 통합할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한다. CrossRef는 출판사의 ORCID ID 사용과 ORCID 시스템과의 통합 모범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ORCID와 공동으로 출판사를 위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 ● CrossCheck 이용자 증가 및 이용자 그룹 회의 개최

**CrossCheck**의 2012년은 88개의 새로운 출판사가 서비스 사용에 가입했고 참여자 수가 2012년 말 현재 3710명 미만으로 늘어난다. 이제 CrossCheck는 월 평균 5만여 건의 문서가 검색되고, CrossCheck 회원으로부터 3,370만 개의 DOI가 CrossCheck 데이터베이스에서 색인되는 등 매우 유용한 자료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CrossCheck 이용자 그룹(user group) 회의가 CrossCheck Annual Meeting과 함께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출판사가 직접 아이파라다임(iParadigms)사의 로리 맥아더(Laurie McArthur)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2012년 12월 공개된 새로운 마이센티케이트(iThenticate) 기능성을 보여주는 시사회도 열렸다.

이 밖에 올해 개최될 이용자 그룹 회의는 COPE European Seminar(2013년 3월)을 포함하여 몇 차례 더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날짜 확정 후 CrossRef 회원에게 공지된다.

## ● CrossCheck iThenticate 시스템 개발

마이센티케이트(iThenticate) 시스템은 최근 문서 보고서보다 더 알아보기 쉬운 유사성 보고서(Similarity Reports)를 볼 수 있는 문서 뷰어(Document Viewer, DV)를 베타 출시하였다.

사용자는 DV를 통해 유사성 보고서 내에서 이미지, 표, 그래프를 포함하여 업로드된 원래 형식의 문서를 볼 수 있다. DV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사용방법은 **iThenticate 웹사이트**(<http://www.ithenticat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입문강좌 웨비나**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니 잠재적 이용자나 기존 이용자 모두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를 권장한다. CrossCheck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웨비나 신청 전 **e-mail**을 보내면 된다.

## ● CrossMark 업데이트 확인 서비스

많은 선도적 학술 출판사들이 **International Union of Crystallography**(그림 참조)와 같은 논문 초록 페이지나 pdf 본문에서 **CrossMark 업데이트 확인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journal page for Acta Crystallographica Section D Biological Crystallography, Volume 69, Part 2 (February 2013). It includes a search bar and a CrossMark logo.

▲ <http://scripts.iucr.org/cgi-bin/paper?S0907444912045374>

해당 페이지에서 CrossMark 로고를 클릭하면 콘텐츠가 최신의 것인지는 물론 수정, 철회, 추가 등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판사는 CrossMark 대화상을 통해 연구자에게 추가 출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출판일, 전문가 심사 과정, CrossCheck 검사, CrossMark의 'Record' 탭에 나타나는 데이터 deposit이나 레지스트리의 위치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CrossMark 대화상자는 **FundRef** 데이터를 보여주기에도 적절한 장소이다.

출판사 와일리(Wiley)와 미국 물리학회(American Institute of Physics)는 최근 CrossRef 회원으로서 콘텐츠에 CrossMark 로고를 표시하기 시작했고, 엘스비어(Elsevier)는 1,000개 이상의 타이틀에 CrossMark 표시를 확대할 계획에 대해 밝혔다.

CrossMark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비스 소개 및 시행방법 안내에 관한 웨비나나 CrossMark 예시나 최신 기술정보를 찾을 수 있다. 또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CrossMark 예시나 최신 기술정보를 찾을 수 있다.

## ● DOI 소유권 이전(移轉) 방법

DOI 소유권 이전(移轉)이 필요한 경우, 인수하는 출판사는 반드시 처분하는 회사의 소유권 이전 동의 확인과 함께 CrossRef를 제공해야 한다. United Kingdom Serials Group(UKSG)의 CrossRef 이전 프로젝트

참여자는 이전 확인과 함께 이전 공고 데이터베이스(**Transfer notification database**)에서 이전 기록이 가능하다.

마직까지는 인수하는 출판사가 CrossRef Support에 이전을 공고해야 하며, 이전 프로젝트 참여자가 추가 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 ● CrossRef 메타데이터 서비스(CMS) 확대

CrossRef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 Enhanced CrossRef 메타데이터 서비스(CrossRef Metadata Services, CMS)를 제공한다.

Enhanced CMS 이용자는 CrossRef에서 메타데이터를 가져온 후 **CMS 관리스**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계약은 출판사에게 CrossRef DOI를 사용하여 전문에 링크할 것을 권장한다.

CrossRef가 가능하도록 하는 메타데이터는 DOI와 참고문헌이 Cited-by Linking에 저장된 표준 서지 메타데이터이다.

단, 전문이나 초록이 메타데이터의 한 부분이 아니고 CrossRef deposit의 부분도 아니듯, 전문이나 초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메타데이터 공유를 원하지 않는 출판사 회원은 Enhanced CMS에 가입하는 특정 조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새로운 CMS 신청자에게 서비스를 적용할 때, CrossRef는 각 출판사 회원에게 알리고, 회원에게는 그 단체의 메타데이터의 전체 혹은 일부를 차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특정 조직에의 참여 여부를 알리거나 CMS 사용자 리스트에 필요한 회원은 CrossRef의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에게 연락하면 된다.

현재 **CMS 가입자 목록**을 볼 수 있으며, 선택 해제 링크가 있는 최신 Enhanced CMS 가입자(2012년 7월 이후)는 다음과 같다.

## Reprints Desk

## Knole, Inc.

## Informascope

## Plum Analytics

## Hindawi

**CMS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CMS 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여 볼 수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CrossMark CMS page with links to Reprints Desk, Knole, Inc., Informascope, Plum Analytics, and Hindawi. It also includes a search bar and a navigation menu.

▲ <http://scripts.iucr.org/cgi-bin/paper?S0907444912045374>

## ● DOI 소유권 이전(移轉) 방법

DOI 소유권 이전(移轉)이 필요한 경우, 인수하는 출판사는 반드시 처분하는 회사의 소유권 이전 동의 확인과 함께 CrossRef를 제공해야 한다. United Kingdom Serials Group(UKSG)의 CrossRef 이전 프로젝트

참여자는 이전 확인과 함께 이전 공고 데이터베이스(**Transfer notification database**)에서 이전 기록이 가능하다.

마직까지는 인수하는 출판사가 CrossRef Support에 이전을 공고해야 하며, 이전 프로젝트 참여자가 추가 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 ● CrossRef 메타데이터 서비스(CMS) 확대

CrossRef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 Enhanced CrossRef 메타데이터 서비스(CrossRef Metadata Services, CMS)를 제공한다.

Enhanced CMS 이용자는 CrossRef에서 메타데이터를 가져온 후 **CMS 관리스**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계약은 출판사에게 CrossRef DOI를 사용하여 전문에 링크할 것을 권장한다.

CrossRef가 가능하도록 하는 메타데이터는 DOI와 참고문헌이 Cited-by Linking에 저장된 표준 서지 메타데이터이다.

단, 전문이나 초록이 메타데이터의 한 부분이 아니고 CrossRef deposit의 부분도 아니듯, 전문이나 초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메타데이터 공유를 원하지 않는 출판사 회원은 Enhanced CMS에 가입하는 특정 조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새로운 CMS 신청자에게 서비스를 적용할 때, CrossRef는 각 출판사 회원에게 알리고, 회원에게는 그 단체의 메타데이터의 전체 혹은 일부를 차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특정 조직에의 참여 여부를 알리거나 CMS 사용자 리스트에 필요한 회원은 CrossRef의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에게 연락하면 된다.

현재 **CMS 가입자 목록**을 볼 수 있으며, 선택 해제 링크가 있는 최신 Enhanced CMS 가입자(2012년 7월 이후)는 다음과 같다.

## Reprints Desk

## Knole, Inc.

## Informascope

## Plum Analytics

## Hindawi

**CMS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CMS 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여 볼 수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CrossMark CMS page with links to Reprints Desk, Knole, Inc., Informascope, Plum Analytics, and Hindawi. It also includes a search bar and a navigation menu.

▲ <http://scripts.iucr.org/cgi-bin/paper?S0907444912045374>

## ● DOI 소유권 이전(移轉) 방법

DOI 소유권 이전(移轉)이 필요한 경우, 인수하는 출판사는 반드시 처분하는 회사의 소유권 이전 동의 확인과 함께 CrossRef를 제공해야 한다. United Kingdom Serials Group(UKSG)의 CrossRef 이전 프로젝트

참여자는 이전 확인과 함께 이전 공고 데이터베이스(**Transfer notification database**)에서 이전 기록이 가능하다.

마직까지는 인수하는 출판사가 CrossRef Support에 이전을 공고해야 하며, 이전 프로젝트 참여자가 추가 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 ● CrossRef 메타데이터 서비스(CMS) 확대

CrossRef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 Enhanced CrossRef 메타데이터 서비스(CrossRef Metadata Services, CMS)를 제공한다.

Enhanced CMS 이용자는 CrossRef에서 메타데이터를 가져온 후 **CMS 관리스**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계약은 출판사에게 CrossRef DOI를 사용하여 전문에 링크할 것을 권장한다.

CrossRef가 가능하도록 하는 메타데이터는 DOI와 참고문헌이 Cited-by Linking에 저장된 표준 서지 메타데이터이다.

단, 전문이나 초록이 메타데이터의 한 부분이 아니고 CrossRef deposit의 부분도 아니듯, 전문이나 초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메타데이터 공유를 원하지 않는 출판사 회원은 Enhanced CMS에 가입하는 특정 조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새로운 CMS 신청자에게 서비스를 적용할 때, CrossRef는 각 출판사 회원에게 알리고, 회원에게는 그 단체의 메타데이터의 전체 혹은 일부를 차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특정 조직에의 참여 여부를 알리거나 CMS 사용자 리스트에 필요한 회원은 CrossRef의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에게 연락하면 된다.

현재 **CMS 가입자 목록**을 볼 수 있으며, 선택 해제 링크가 있는 최신 Enhanced CMS 가입자(2012년 7월 이후)는 다음과 같다.

## Reprints Desk

## Knole, Inc.

## Informascope

## Plum Analytics

## Hindawi

**CMS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CMS 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여 볼 수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CrossMark CMS page with links to Reprints Desk, Knole, Inc., Informascope, Plum Analytics, and Hindawi. It also includes a search bar and a navigation menu.

▲ <http://scripts.iucr.org/cgi-bin/paper?S0907444912045374>

## ● DOI 소유권 이전(移轉) 방법

DOI 소유권 이전(移轉)이 필요한 경우, 인수하는 출판사는 반드시 처분하는 회사의 소유권 이전 동의 확인과 함께 CrossRef를 제공해야 한다. United Kingdom Serials Group(UKSG)의 CrossRef 이전 프로젝트

참여자는 이전 확인과 함께 이전 공고 데이터베이스(**Transfer notification database**